

## 말하기 학습자의 자기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말하기 교육 연구\*

유 혜 원  
(단국대학교)

### Abstract

Yoo, Hye-won. 2012. The study on speech education by self-evaluation results analysis of speech learner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1). pp. 111-134. In this paper, I suggested the ideas for developing efficient educational contents and educational methods of speech education in the university by analyzing the self-evaluation results of college students' speeches. To do this study, I gave the students the checklist to be able to evaluate their speeches. The students had to submit the checklist and evaluation report for their speeches. The students' self-evaluations were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nalyzed and extracte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speech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 suggested some ideas as follow. First, to improve their speech ability, it is important to gain confidence. So four strategies to gain confidence were proposed. Second, we must enforce the non-verbal education contents. Many students think that non-verbal elements in the speech are very difficult to do well. Therefore efficient educational methods as well as educational contents of non-verbal must be developed. Third, as to do high level speech, students must enhance linguistic sensitivity, so I proposed the methods of enhancing linguistic sensitivity. Last, I represented the meaning of speech contents. What this study is empirical is its good points.(208)

**Keywords:** speech education, self-evaluation, quantitative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linguistic expression, non-verbal expression

---

\* 이 논문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1-55016).

## 1. 서론

말하기 교육에서 학습자의 자기 평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말하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말하기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말하기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 말하기 수행의 특징을 살펴보고, 더 나은 말하기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말하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반영된 종합적인 활동이어서,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말하기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말하기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을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자기 평가는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 결과는 대학생들의 말하기 수행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말하기의 효율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말하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특성과 말하기 수행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찾기 위해, 말하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자기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자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질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 평가 결과는 대학생들의 말하기 수행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말하기 교육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체크리스트 결과와 자기 평가 결과 보고서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차이를 다방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말하기를 잘 하도록 교육해야 하는 교수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11년 2학기 단국대학교 <말하기기초>를 수강하는 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공과대학 학생 47명, 상경계열 학생 47명, 음악대학 학생 39명으로 총 세 개 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반의 계열을 모두 다르게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단국대학교 핵심 교양인 <말하기기초>에서는 공식적 말하기를 교육하고 있는데, 자기소개, 프레젠테이션, 토론 등의 3회의 실습을 하게 된다. 자기소개는 1분 동안 여러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을 소개하게 했고, 자기소개 발표를 촬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발표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소개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나누어 주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발표 동영상을 본 후 자기 소개 평가 보고서를 과제로 제출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발표와 관련된 특성을 제시하라고 하면, 큰 틀에서 이야기하거나 모호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첫 번째 발표인 자기소개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였다.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작성하는 자기 평가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항목별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고안된 체크리스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발표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평가 보고서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체크리스트는 유혜원·김유미·김정녀(2011)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sup>1)</sup> 이 연구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말하기 유형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내용	평가	설명
성격	스타일	나는 외향적이고 활기찬 성격과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상 중 하	상(그렇다), 중(보통), 하(그렇지 않다)
	이성 / 감성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가?	상 중 하	상(이성적), 중(보통), 하(감성적)
	사적	나는 평소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상 중 하	상(그렇다), 중(보통), 하(그렇지 않다)

1)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를 정치 리더 3인, 경제 리더 3인, 문화 리더 3인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말하기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여, 말하기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 리더 발화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학생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여성 리더 발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일부 수정하여 본고에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공격	발표에 자신감이 있는 편인가?	상 중 하	상(그렇다), 중(보통), 하(그렇지 않다)
음성적 특징	크기	나의 목소리는 큰 편인가?	상 중 하	상(큼), 중(중간), 하(작음)
	빠르기	나의 말하기 속도는 어떠한가?	상 중 하	상(빠름), 중(적절), 하(느림)
	휴지	말을 할 때 적절한 쉬을 두는 편인가?	상 중 하	상(그렇다), 중(보통), 하(그렇지 않다)
	음높이	나의 음높이는 낮은 편인가?	상 중 하	상(낮은 편), 중(중간), 하(높은 편)
언어 습관	역양	나의 역양의 변화는 다양한가?	상 중 하	상(다양함), 중(적절), 하(단조로움)
	표현	'하십시오체'를 '해요체'보다 많이 쓰는가?	상 중 하	상(하십시오체), 중(섞어 씀), 하(해요체)
	발음	나의 발음이 분명하고 정확한가?	상 중 하	상(그렇다), 중(보통), 하(그렇지 않다)
	방언	나는 방언 화자인가?	Yes/No	지역 :
비언어	자세	나의 서 있는 자세가 곧고 바른가?	상 중 하	상(그렇다), 중(보통), 하(그렇지 않다)
	시선	청중과 적극적으로 눈을 맞추며 말하는가?	상 중 하	상(그렇다), 중(보통), 하(그렇지 않다)
	제스처	말할 때 제스처 사용에 부담이 없는가?	상 중 하	상(적극적 사용), 중(적절), 하(제스처 부담)
	표정	나는 말할 때 표정이 풍부한가?	상 중 하	상(풍부함), 중(적절), 하(절제함)

위의 체크리스트는 자기소개 발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특성을 이해 하도록 제안된 체크리스트이다. 물론 위의 항목 중에서 평가 항목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습관을 체크 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말하기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이는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위의 체크리스트와 말하기 수행을 위한 평가도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성격적인 부분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거나 혹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자신감' 정도가 평가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위의 체크리스트에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말하기 평가에 대한 연구인 나은미(2007, 2008)<sup>2)</sup>, 박미영(2008), 유혜원(2009)에서<sup>3)</sup> 제시된 평가 항목에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비중 있게 다루진다는 점에서 위의 체크리스트와 구별된다.<sup>4)</sup>

학생들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이 답변한 내용을 엑셀로 정리하고 항목별로 학생들이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말하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과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체크리스트의 답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학생들의 말하기 수행 점수와 이들 체크리스트가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 학기동안 수행한 말하기 수행 점수를 토대로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으로 나누어 각각의 답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세 개 반에서 상위권 10명씩, 하위권 10명씩 총 상위권 30명과 하위권 30명의 답변 내용을 분석하였다.<sup>5)</sup> 발표 점수는 한 학기 동안 실습했던 세 가지의 말하기를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등수를 매겨서 선정하였다. 평가한 말하기는 자기소개, 프레젠테이션, 토론이

- 
- 2) 나은미(2007)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화법 평가 항목을 제시하면서 크게 내용 충위와 표현 충위로 나누고, 내용 충위를 도입-진개-마무리로 각 세부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현 충위에서는 언어적 요소로 소리, 어휘-문장, 어투, 비언어적 요소로 표정, 시선, 동작, 태도 및 기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은미(2008)에서는 정보전달 발표에 대한 학생 청중의 평가를 토대로 평가의 경향성과 상·하위 점수 분포자들을 대상으로 평가 항목별 긍정 및 부정 평가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의 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향점과 많은 부분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정보전달 발표라고 연구 범위를 제한한데 비해, 본고에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이 상위권과 하위권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3) 유혜원(2009)는 프레젠테이션 평가표를 전체 11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음성 형식, 언어 외적, 진행 구성 태도, 내용'으로 범주화하여 제시되고 있다.
- 4) 결국 위의 체크리스트는 자신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결과가 학생들 수행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상위권과 하위권을 나누어 분석할 때에는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질적 자기 평가 결과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수는 있을 것이다.
- 5) 상위권과 하위권을 각 반에 10명씩 하여 30명씩을 선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해 주셨다. 대학에서 상대평가의 A 등급 비율이 30%인 점을 감안하여 상위권과 하위권을 좀 더 명시적으로 보기 위해 25% 수준으로 축소하였고, 그렇게 했을 때 33.25명 정도가 되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10명씩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6)

마지막으로는 이들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기 평가 보고서에서 보이는 특성들을 추출하고, 이를 말하기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 3. 체크리스트의 계량적 분석

체크리스트는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나눠서 답변하게 했는데, 아래의 표는 133명의 학생이 항목별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전체 답변과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답변을 비교하기 위해 이를 함께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2) 체크리스트 답변 내용(단위 %)<sup>7)</sup>

	전체			상위권			하위권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스타일	34.5	50.3	15.0	43.3	43.3	13.3	23.3	60.0	16.7
이성	25.5	61.6	12.7	43.3	43.3	13.3	30.0	63.3	6.7
사적	39.1	43.6	17.2	46.7	43.3	10.0	20.0	56.7	23.3
공적	16.5	47.3	36.0	30.0	53.3	16.7	6.7	40.0	53.3
크기	29.3	56.3	14.2	30.0	70.0	0.0	10.0	63.3	26.7

6) 체크리스트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자기소개 이후 동영상을 보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가 자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교육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세 가지 말하기 유형을 합해서 상위권과 하위권을 분류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본 논문이 지향하는 바는 말하기 수행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수행을 세 가지 종류의 말하기를 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익명의 심사자께서 제시한 것처럼 프레젠테이션과 토론 등에서 수행의 차이를 보여주는 학생들이 더러 있으나,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수업에서 자기소개와 프레젠테이션의 점수 차는 학생별로 비교적 많이 나타나, 토론은 실습의 특성상 그렇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7) 아래의 수치는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고, 소수점 두 자리 이하는 버림으로 처리하여, 전체를 합산한 것이 100%보다 작을 수 있음을 밝힌다.

빠르기	28.5	66.1	5.2	40.0	56.7	3.3	13.3	80.0	6.7
휴지	21.0	61.6	17.2	30.0	50.0	20.0	26.7	56.7	16.7
음높이	27.8	53.3	18.8	26.7	50.0	23.3	23.3	70.0	6.7
억양	18.0	41.3	40.6	13.3	50.0	36.7	16.7	43.3	40.0
표현	26.3	42.1	31.5	20.0	50.0	30.0	26.7	33.3	40.0
발음	20.3	54.1	25.5	30.0	53.3	16.7	26.7	56.7	16.7
자세	26.3	51.8	21.8	40.0	43.3	16.7	33.3	40.0	26.7
시선	26.3	42.8	30.8	46.7	40.0	13.3	13.3	40.0	46.7
제스처	8.2	42.8	48.8	3.3	43.3	53.3	6.7	43.3	50.0
표정	15.9	40.1	43.9	20.0	33.3	46.7	6.7	40.0	53.3

항목별로 학생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스타일은 자신이 외향적이고 활기찬 성격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물어 보는 질문이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중’이라고 답함으로써 자신이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항목도 성격에 속하는 것으로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가?’에 대해 답변하게 하였다. 이 역시도 60%가 넘는 학생들이 ‘중’이라고 답하여 두 항목 중 어느 하나로 편중되게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sup>8)</sup>

세 번째 항목도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나는 평소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는 사적으로 말을 잘 하는 편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상’과 ‘중’에 분포된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8) 스타일과 이성/감성 항목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관련된 항목이다. 실제로 발표를 비롯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격이 의사소통 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심리학 분야에서 다수 제시되고 있다. 정희정(2006)에서는 대학생들의 에너지 유형에 따라 자기표현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한 촉진적 의사소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학생들을 사고 중심, 감정 중심, 본능 중심으로 나누고 말하기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른 자기표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자기표현을 가장 잘 하는 집단은 사고 중심이며, 표정, 손발의 움직임 등의 동작언어면에서도 사고 중심의 학생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사고 중심의 학생들이 자기표현을 가장 잘하는 집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말하기 교육에서 학생들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본고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주 정밀하게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말을 할 때 보여주는 성향에 따라 몇 가지 유형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항목은 “발표에 자신감이 있는가?”라고 하여 3번의 항목이 사적 말하기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적 말하기에 대한 태도를 보고자 한 항목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3번 항목과 달리 ‘중, 하’의 비율이 높아 학생들이 공적 말하기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목소리는 큰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중’을 선택하였다. 특징이 있다면, 공과계열은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많은 편이었는데, ‘목소리가 작다’를 반영하는 ‘하’의 답변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sup>9)</sup>

“나의 말하기 속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60%가 넘는 학생들이 ‘중’이라고 답해 자신의 말하기 속도가 보통이라고 인지했다. 반면에 말하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반영하는 ‘하’는 5.2%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의 발화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말하기 속도가 빠른 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음성적 특징을 보여주는 휴지, 음높이는 ‘중’의 답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 습관을 나타내는 억양, 표현, 발음 등에서는 ‘중’의 답변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나의 서 있는 자세가 곧고 바른가?”라는 질문 역시 50% 정도의 학생들이 ‘중’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선 처리는 “청중과 적극적으로 눈을 맞추며 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중’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상’이나 ‘하’의 분포가 높아서 학생들이 고루 상, 중, 하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말을 할 때 제스처 사용에 부담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공식적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스처 사용은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항목이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말할 때 표정이 풍부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제스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학생들이 비언어적 표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체크리스트의 많은 질문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중’이라는 답변을 택함으로써 자신을 어느 한 쪽으로 긍정 혹은 부정하기보다는 중간적

9) 목소리 크기에 대한 계열별 답변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상계열	공과계열	음악대학
상	25.5	34	28.2
중	51.1	61.7	56.4
하	23.4	4.3	15.4



성향의 답변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체크리스트의 결과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특성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전체 결과를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생들의 답변 결과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이 각 문항별로 상, 중, 하 응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분포를 이용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고, 통계 검정에는 SPSS 12.0.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각 항목별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값	자유도	접근 유의 확률(양측검정)
스타일	2.718	2	.257
이성	2.519	2	.284
사적	5.333	2	.069
공적	10.788	2	.005
크기	11.100	2	.004
빠르기	5.528	2	.063
휴지	.275	2	.872
음높이	3.844	2	.146
억양	.297	2	.862
표현	1.714	2	.424
발음	.089	2	.956
자세	.914	2	.633
시선	11.111	2	.004
제스처	.366	2	.833
표정	2.315	2	.314

위의 표의 의미를 스타일 문항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스타일 문항에 대하여 상위권 그룹과 하위권 그룹의 상, 중, 하 응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수준 .05에서  $\chi^2$  분포를 이용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검정 결과  $\chi^2(2)=2.718$ ,  $p=.257$ 로 나와 유의수준 .05에서 상위권 그룹과 하위권 그룹의 응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권 그룹과 하위권 그룹의 ‘스타일’에 대한 답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통계 결과를 토대로 상위권과 하위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항목은 ‘공적’ 항목과 ‘크기’, ‘시선’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슬아슬하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 항목은 ‘사적, 빠르기’ 항목을 들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 항목들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답변이 차이를 보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답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명시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상위권의 답변 비율에서 전체 평균의 답변을 뺀 값을 구하고, 하위권의 답변 비율에서 전체 평균의 답변을 뺀 값을 구하여, 각각 그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값은 전체 평균에 비해 해당 유형 항목에 더 많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고 -값은 그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4) 상위권과 하위권의 답변 비율과 전체 평균의 답변 비율과의 차

	상위권 비율-전체 비율			하위권 비율-전체 비율		
	상	중	하	상	중	하
스타일	8.7	-7.0	-1.7	-11.3	9.6	1.6
이성	17.8	-18.3	0.6	4.4	1.7	-6.1
사적	7.6	-0.3	-7.3	-19.1	13.1	6.0
공적	13.5	6.0	-19.4	-9.9	-7.4	17.2
크기	0.7	13.6	-14.3	-19.3	6.9	12.4
빠르기	11.4	-9.5	-1.9	-15.2	13.8	1.4
휴지	8.9	-11.7	2.7	5.6	-5.0	-0.6
음높이	-1.2	-3.4	4.5	-4.5	16.6	-12.1
억양	-4.7	8.6	-3.9	-1.4	2.0	-0.6
표현	-6.3	7.9	-1.6	0.4	-8.8	8.4
발음	9.7	-0.8	-8.9	6.4	2.5	-8.9
자세	13.7	-8.5	-5.1	7.0	-11.9	4.9
시선	20.4	-2.9	-17.5	-13.0	-2.9	15.8
체스처	-4.9	0.5	4.5	-1.6	0.5	1.1
표정	4.1	-6.8	2.7	-9.2	-0.2	9.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 항목에 대해 상위권에서는 ‘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하’라고 답변한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위권은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높은 정도로 차이를 보였던 사적 항목 역시 상위권에서는 ‘상’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하위권에서는 ‘상’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말하기에 부담이 없으면서, 발표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공적 말하기에서 좋은 수행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크기’에 대한 항목으로 상위권에서는 ‘상’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하’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대로, 하위권에서 ‘상’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하’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음성적 요소의 하나인 ‘빠르기’도 유의 수준에 들어오지는 않으나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인데, 빠르기에서는 상위권에서 ‘상’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하위권에서는 ‘상’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목소리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실제 수행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위권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말하기의 속도가 빠르다고 답변하는 ‘상’은 상위권에서 높은 반면 하위권에서는 자신의 말의 빠르기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말의 빠르기는 말의 유창성에도 관련이 높은 항목으로 전체 발표 수행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세 번째 시선은 상위권에서는 ‘상’이 20.4%가 늘고 ‘하’는 17.5%가 줄어든 반면, 하위권에서는 ‘상’이 13.0%가 줄고 ‘하’가 15.8%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경향을 매우 뚜렷하게 반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말하기 수행 점수에서 ‘시선’에 대한 부분이 매우 큰 비중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sup>11)</sup>

위의 항목들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10) 유창성은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주된 평가 항목이다. 그러나 유창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가 어렵다. 김태경·이필영(2007:26)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유창성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유창성의 개념이 넓게는 이해력을 포함하거나 적절성 또는 정확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며, 좁게는 독립적인 항목이 아닌 담화 구성 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되기도 했다고 하면서, “더듬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속도와 연속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11) 이 체크리스트는 말하기 수업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발표를 수행하고 그 발표를 보고 난 후 작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발표를 위해 발표의 특성, 내용 구성의 방법, 발표의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학습하였기 때문에, 말하기에서 중요한 지점을 잘 기억하고 말하기 수행에 반영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선’은 학생들의 말하기 수행 평가에서 가장 가치적인 판단이 쉬운 항목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사항으로 가장 많이 나올 만큼 발전이 어려운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않지만, 미세한 답변 차이는 있다. 우선 자신이 이성적인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상위권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상’이라고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 말하기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자신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계획하에 발표 준비를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표 수행이 좋은 학생들 중에 본인을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을 할 때 적절한 씬을 두는 편인가?’에 대해 상위권 학생들은 ‘중’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낮았음에 비해 ‘상’이나 ‘하’로 답변한 수가 많아진 반면, 하위권 학생들에게서는 ‘상’의 비율이 다소 늘기는 하나, 의미있는 증감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자신의 음높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하위권 학생들이 ‘상’이나 ‘하’로 답변한 비율에 비해 ‘중’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휴지와 음높이의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의 분석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중’이라는 답변은 자신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당 항목에 대해 자신의 성향을 주의 깊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휴지나 음높이에 대한 답변에서 ‘중’으로 답변한 학생이 상위권에서 적고 하위권에서 많다는 것은 하위권 학생들이 이 항목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위권 학생들의 평가 보고서에서 휴지나 음높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학생들이 거의 없는 반면, 상위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자신을 관찰하여 분석한 학생들이 다수 있다.<sup>12)</sup>

언어적 표현에서는 상위권에서 ‘말음’ 항목에서 ‘상’이 9.7%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다른 항목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찾을 수 없다. 이 역시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생들이 억양이나 표현, 발음 등에서 평균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학생들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비언어 부분에서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자세’이다. 이에 대해 상위권에서는 긍정적 답변인 ‘상’이 1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권에서도 ‘중’이 줄어들고 ‘상’과 ‘하’가 각각 늘어난 경향을 보인다. 비언어에서

12)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말하기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분석적으로 보고 해당 항목의 특징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학생이 말하기 수행을 잘하며, 또한 말하기 수행의 향상도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은 말하기 교육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한다.

제스처와 표정은 상위권과 하위권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항목 역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발표 경험을 돌이켜보면, 제스처와 표정은 학생들이 평소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답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자신을 평가한 체크리스트의 결과들을 토대로 계량적 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몇 개의 항목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답변은 차이를 보였으며, 여기에서 파악된 경향들은 앞으로의 말하기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계량적으로 분석한 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4. 말하기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의 내용 분석

말하기 수행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 학생들이 제출한 평가 보고서에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의 내용을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실 말하기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말하기 자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학습 태도 등이 말하기 평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 평가 보고서 역시 학생들의 성실도가 반영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말하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도록 주문해서, 자기 평가 보고서에서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추출할 수 있었다.<sup>13)</sup> 실제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평가에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기 평가 내용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하위권 학생들이 자기 평가에서 부정적 요소로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3) 평가 보고서는 자신의 말하기 수행에 대해 서술형으로 평가하게 한 도구이다. 학생들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수업 시간에 말하기 수행을 할 때 동료 평가를 통해 말하기 평가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말하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항목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게 하였기 때문에,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 (5) ㄱ. 대본 숙지 미흡/ 대본 의지  
 ㄴ. 자신감 부족  
 ㄷ. 불안한 시선

위에서 제시한 항목은 상위권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우선 하위권에서는 대본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는 반대로 상위권에서 ‘충분한 대본 숙지’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본에 의지했다는 평가에 더해 학생들은 자신감이 없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다고 한 부분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성격적인 면으로 ‘소심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등과 같이 자신이 발표에 어려움을 겪는 성격이라는 것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sup>14)</sup> 두 번째는 연습량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발표할 때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연습이 부족해서 학생들은 자신감이 없어지며, 이로 인해 발표에서 대본에 의지하거나 대본을 잊어버렸음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았다.<sup>15)</sup>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하위권에서 시선 처리가 부정적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자신의 시선 처리가 장점이라고 지적한 학생은 하위권에서 1명이 있었다. 그러나 상위권에서는 자신의 시선 처리가 좋았다고 제시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상위권과 하위권에서 매우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위권과 하위권을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는 하위권에서 내용과 관련된 지적이 부정적 요소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용이 빈약하다든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나타났으며, 구성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특징적이다.<sup>16)</sup> 반면 상위권에서는 내용에 대한 지적이 부정적인 요소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색적인 소재, 목적이 분명한 발표’라는 긍정적인 평가

14) 흥미롭게도 상위권 학생들의 자기 평가 보고서에는 성격과 관련된 진술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긍정적 마인드, 자신감’과 같은 요소가 장점이었음을 일부 학생이 제시하고 있다.

15) 이밖에 하위권의 부정적 평가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신이 사투리 화자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고, 이것이 발표 수행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학생들이 있었다. 대체로 경상 방언 화자들이 이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6) 내용에 대해 ‘빈약하다, 부실하다, 미흡하다’ 등의 전반적인 지적도 있었으며, ‘짜깁기식 발표, 산만한 내용, 시간 안배 실패’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하위권에서 다수 나타났다.

를 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정적인 요소는 표정과 제스처 부분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표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많이 지적하였다. 어색한 표정, 경직된 표정 등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제스처 역시 부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한 학생이 있는 반면, 제스처가 하나도 없었음이 잘못되었다고 제시한 학생들도 있었다. 하위권에서도 표정과 제스처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기도 하나, 이것보다는 자세에 대한 지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짝다리를 하고 있다든지, 뒷짐을 지고 있었다든지, 자세가 불안정했다든지, 손의 위치 이동이 잦았다든지와 같이 발표를 할 때 자신의 자세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상위권 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음성과 언어적 요소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다. ‘밝고 높은 톤의 목소리, 밝고 듣기 좋은 톤, 자연스러운 말투, 목소리 크기, 정확한 발음, 말의 속도, 성량’ 등을 장점으로 제시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하위권 학생들은 ‘떨리는 발성, 말의 속도 빨라짐, 읽는 듯한 말투’ 등과 같은 부정적 요소가 드러나기도 하나, ‘말하기 속도, 발음, 크고 힘있는 목소리’ 등을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기도 한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계량적 평가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량적 평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면모도 새롭게 볼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내용’에 대한 평가이다. 이번 실험을 위해 제시한 체크리스트는 자신의 성향을 알기 위해 제시한 리스트여서 내용에 대한 평가 부분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질적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다수 있었으나, 상위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용’이 발표 수행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말하기를 구성하는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자기 평가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상위권 학생들의 평가 보고서는 말하기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를 매우 분석적으로 보고 있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못한 억양에 대한 지적으로 ‘책을 읽는 듯한 건조하고 재미없는 억양’이라고 제시하기도 하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며, ‘말과 말 사이에 쉬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함으로써 말하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선이나 자세 등에 대해서도 ‘구부정한 자세, 눈

을 많이 깜빡거림, 턱을 치켜 들' 등과 같이 자신의 문제점을 구체화해서 보여주려는 경향을 보인다.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요소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말하기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5. 말하기 교육을 위한 제안

이 연구는 대학생들이 말하기 수행에서 보여주는 양상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으로 전체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는 어려우나, 대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발표에 적용하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나누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비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제안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답변이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민감도가 낮거나 혹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3장과 4장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기 교육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5.1. 자신감 고취의 중요성

자기 평가 보고서의 체크리스트와 상위권과 하위권에서의 답변의 차이를 비교한 부분을 보면 발표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학생은 공적 말하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기도 하며 반면 어떤 학생은 아주 큰 부담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극복하고 발표 수행을 무난히 마칠 수 있는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6) ㄱ. 자신에 대한 이해
  - ㄴ. 자신의 장점 찾기
  - ㄷ. 발표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 ㄹ. 충분한 연습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첫 번째 전략은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피지기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장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sup>17)</sup> 설문 조사 결과에서 자신이 외향적이라고 평가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성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교실에서 교육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크고 활기찬 사람들은 생동감 넘치는 발표로 청중들을 압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목소리가 작고 내성적인 학생들은 자신의 발표가 신중한 발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발표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을 학생 스스로가 찾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자신의 발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에 수행할 발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 발표를 준비하게 하고, 충분한 연습을 통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공식적 발표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식적 발표 경험을 많이 가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학생들의 발표와 자기 평가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수업 시간에 발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신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18)</sup> 즉, 말하기 교육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실질적 수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17) 실제로 이러한 전략은 유혜원·김유미·김정녀(2011)에서 효율적인 말하기 교육 방안으로 제안된 바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말하기 수행을 위한 학습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었는데, 학습의 단계, 지피의 단계, 지기의 단계, 전략 수립의 단계로 나누었다. 이처럼 발표 전에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발표 수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8) 특히 발표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 하던 학생이 몇 번의 발표 실습을 통해 자신이 발표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깨닫고, 또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서, 말하기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에서 실습을 통한 말하기 교육의 교육 효과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 5.2.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교육 내용 강화

학생들의 말하기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언어에 대한 교육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세, 표정, 제스처 등은 상위권과 하위권에서 모두 학생들이 자신 없어 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질적 분석에서도 비언어에 대한 부분은 발표 경험이 많이 없는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언어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원영(2008)에서는 동작 언어를 위한 교육 방안으로 말하기 유형별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방안이 필요하며, 화자의 특성별 교육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학생의 화법 수준을 진단하는 프로그램과 그러한 학습자의 성향과 화법의 수준에 따른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동작 언어 즉, 비언어 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말하기 교육에서 '시선'과 '자세'는 반복된 실습을 통하여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단점을 수정할 수 있다. '시선'과 '자세'는 말하기에서 시선과 자세가 어떠한지 한다는 지침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발표 당시의 심리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발표할 때 자신감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발표 과정에서 자신을 모니터링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이 무심코 하는 자신 없는 시선 처리, 불안정한 자세 등을 인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제스처는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시도를 못하거나, 하더라도 매우 어색한 제스처를 만들곤 한다. 말하기 교육에서 제스처는 학생들이 실제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상황별 제스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말하기 교육 관련 교재에서 제스처는 자연스러워야 한다든지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어깨나 팔이 힘을 뺀 상태에서 팔 전체를 움직이면서 제스처를 구사하는 것이 좋다. 이때 허리와 머리 사이에서 그리고 양쪽 어깨로부터 옆으로 30cm 이내에서 손이 위로 올라가면 어깨가 약간 들리면서 팔꿈치도 따라 올라가고, 손이 열리면 팔꿈치와 어깨도 바깥으로 같이 움직여야 한다.(이상철 · 백미숙 · 정현숙(2006 : 169-170))'와 같은 내용 정도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풍부한 표정을 짓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 전체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많은 학생들은 무표정하게 발표를 하거나 경직된 얼굴로 발표에 임해 전체적인 발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발표시 표정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여 자신의 표정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5.3. 언어적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 강화

이번 연구에서 계량적 연구에서도 상위권 하위권의 구별 없이 ‘중’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내용 분석에서도 학생들이 언급한 항목이 가장 적었던 부분이 ‘휴지, 억양, 발음’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음성적 특징과 언어 습관과 관련되는 항목인데, 학생들이 대체로 이 항목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성적 특징에 속하는 크기와 빠르기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발음’에 대해서 자신의 발음이 정확하다고 자신을 평가한 학생조차 미세한 발음의 부정확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sup>19)</sup> 실제로 대학생들의 말하기 교육을 위한 조음 및 운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진행된 신지영(2007)에서는 발음 부분에서 치경경구개음의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 화자일수록 치경경구개음의 전방화 문제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실제 20대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발음 문제가 관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0)</sup>

19) 특히 발음의 경우, 학생 대다수가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발표에서 ‘ㄴ’이나 ‘ㄹ’ 발음 등에서 부정확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20) 이 연구에서는 치경경구개음의 치경음으로의 전방화는 유아적인 말투로 평가되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교정하는 방법 또한 신지영(2007:31)에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우선 1차적으로 자신의 발음을 관찰하고 전방화가 관찰되면, 해당 소리를 내 보면서 스스로 내성적인 관찰을 시도해야 한다. 발음을 하면서 자신의 혀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관찰한 다음 혀끝이 아랫니와 아랫잇몸에 닿아 있는지 아니면 아랫니에만 주로 닿아 있는지를 관찰해 본다. 만일 아랫니에만 주로 닿으면서 발음된다면 혀끝을 내려서 아랫니와 아랫잇몸, 특히 아랫잇몸의 경계 부분에 대고 발음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휴지, 억양, 발음은 발표에서 자연스러운 발화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  
나, 언어적 민감도가 높지 않다면 이 항목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  
다. 대학 말하기 교육을 위한 교재에서 음성 표현에 대해 중요하게 제시된 내용은  
첫 번째 분명한 발음에 대한 요구이며, 두 번째는 변화 있는 목소리에 대한 요구  
이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의 요소로 음량, 속도, 억양, 강조, 포즈에 대한 지침을 제  
시하는 경우가 많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너무 소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발  
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침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언어적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보충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혜원(2010)에서는 공  
적 말하기에서 격식 표현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대학생들의 발화 분석을  
통해 어휘적 요소, 문법적 요소, 음성적 요소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논  
의에서는 비격식적 표현의 음성적 특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음성적  
특징이 ‘하십시오체’와 ‘해오체’ 선택과 같은 언어적 요소보다 격식적 표현에서 더  
중요하다는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sup>22)</sup> 또한 최근 음성학과 관련된 국어학 연구에서  
억양 등과 관련된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교육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sup>23)</sup>

본 연구는 주로 발표와 토론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대학에서의 화법 연  
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화행 교육’을 위해서는 상호성을 전제로 한 교육이 필요하  
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내용은 양명희(2011), 전정미(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언어적, 음성적 요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자가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야 하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적이고 전

21) 이상철·백미숙·정현숙(2006),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p.158-163.

22) 유혜원(2010:83)에서는 비격식적 표현의 음성적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 ㄱ. 문장 종결을 상승조로 발화한다.
- ㄴ. 문장의 끝 부분을 늘여서 발화한다.
- ㄷ. 종결어미를 강조하여 발화한다.
- ㄹ. 끊어 읽기가 잘 안되거나 잘못 끊어 읽기가 반복된다.

23) 신지영·차재은(2006)에서는 우리말의 다양한 운율적 특징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로 말하기 교육과 직접적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음성  
학 음운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하기 교육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  
하다.

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5.4. '말하기 내용'에 대한 제안

말하기에서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황혜진·조계숙(2006:132)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용(56.2%), 음성전달능력(15.8%), 시청각 자료(28.9%), 언어외적 요소(2.6%)로 답변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통적 연구인 버드휘스텔(Birdwhistell(1973))과 메라비언(Mehrabian(1969))에서는 의사소통에서 단어에 의해 의미가 전달되는 비율, 즉 언어적인 부분에 의해 전달되는 비율은 각각 30~35%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음성적인 비언어, 비음성적인 비언어적 부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지영(2007)에서는 이들 두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밀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버드휘스텔의 경우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의사통계적으로(pseudostatistically) 수치를 얻었다고 제시하고 있다.(Birdwhistell(1973:157-158))

학생들의 자기 평가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는데, 상위권에서 내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간혹 발견되고, 부정적 평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하위권에서는 내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말하기 수행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용의 충실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기는 내용과 형식의 많은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는 종합적 활동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소홀하다면 좋은 말하기를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용을 기본으로 형식적 요소들의 하위 요소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 5. 마치며

이 연구는 학생들의 자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말하기 특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말하기 교육 내용과 방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도록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말하기를 평가한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말하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격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이었으며,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하위권 학생들은 연습 부족이나 성격 등의 이유로 자신감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고, 내용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말하기의 여러 가지 요소 중 비언어적 부분은 학생들이 모두 어려워 하는 부분임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휴지, 억양, 발음 등은 학생들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말하기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말하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말하기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분석적으로 보고 각 요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기에서 기본적인 학습이 끝나면 결국 자신의 말하기 수행을 상황에 적절하게 또 세련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세한 차이들이 만들어 내는 효과를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교수자는 학생들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러한 특성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등이 발표에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의 장점을 찾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을 유형화하고 이들을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초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김태경·이필영(2007). “유창성 요인으로 본 말하기 능력.” 한국언어문화 제34집,

25~44. 한국언어문화학회.

- 나은미(2007).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조건 및 평가에 대한 고찰.” 화법연구11호, 35~66. 한국화법학회.
- 나은미(2010). “정보전달 발표에 대한 발표에 대한 평가 분석-상·하위 점수 분포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9, 181~208. 한국어학회.
- 도원영(2008). “말하기에서 동작 언어에 대한 고찰-자기소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9, 191~212. 한국어학회.
- 박미영(2008). “화법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한 담화 구성 연구-학습자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문법교육 9, 159~184. 한국문법교육학회.
- 신지영(2007). “구어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조음 및 운율 교육 프로그램 연구.” 구어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발표집, 1-52. 국립국어원 MBC 문화방송 공동 연구 발표회
- 신지영·차재은(2006). 우리말 소리의 체계: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양명희(2011). “한국어교육에서의 화행 교육의 목표와 방향.” 한말연구 20, 193-216.
- 유혜원(2010). “말하기 교육을 위한 격식 표현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4권 제1호, 73~93. 한국교양교육학회.
- 유혜원·김유미·김정녀(2011). “여성 리더 발화 분석을 통한 말하기 교육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19-1, 129~158. 사회언어학회.
- 이상철·백미숙·정현숙(2006).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전정미(2011). “비동의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한말연구 20, 325-352.
- 정희정(2006). “대학생의 애니어그램 성격유형별 자기표현과 촉진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4), 163~173.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황혜진·조계숙(1998).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연구.” 비서학논총, 7-1, 125-142. 한국비서학회.
- Birdwhistell, R. L.(1973). *Kinesics and Context: Essays on Body-Motion Communication*. Middlesex: Penguin Books.
- Mehrabian, A. 1969. “Some referents and Measures of nonverbal behavior”,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Vol. 1, 213-227.

유혜원

transla@dankook.ac.kr

논문 접수일: 2012.03.30.

논문 심사일: 2012.04.15.~2012.05.10.

게재 확정일: 2012.05.15.